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종교개혁기념주일 】

인도 1부 : 이재훈 목사
2부 : 이범석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

- ▲ 경배의 찬송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의 섭리자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안의 개혁할 바를 찾고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작고 연약한 존재를 사랑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불의한 세태와 압제에 맞서게 해 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추문거리가 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낮고 구석진 곳에 주님의 복음을 몸으로 전하게 해 주십시오. 존재의 뿌리가 주님의 사랑과 평화에 잇닿아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사 60:20 인도자
- ▲ 교 독 문 104. 종교개혁주일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 대표기도 조항범 권사
- 2부 응 답 송 찬양대
- 2부 찬 양 586. 어느 민족 누구게나 다 함께
- ▲ 성경봉독 왕하 23:1-3 1부: 인도자/2부: 서동우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I. 시편 62편 마중물찬양대
 II. 시편 23편 청파찬양대

말 씬 언약 안에서 살다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 찬 송 322.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
 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올바른 삶, 생명력 넘치는 삶의 길
 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미쁘신 주님을 신뢰하며, 탄탄대로를
 약속하는 우상들의 유혹을 떨쳐 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
 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예속되어, 불충하게 살았던 지
 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이요 복
 이심을 믿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
 키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특강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집회 / 강의 :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이재훈 목사

사랑은 산길이다

농부에게 가을걷이철은 성적표를 받아 드는 시간이 아닌가 싶다. 땅콩을 손질하며 몇 되나 나올까 가능해 본다. 벌에 넣어놓은 들깨를 쓰다듬으며 우리 식구 1년 먹을 만큼 양이 넉넉한가 헤아려 본다. 고구마 한 줄 캐어 놓고 알이 잘 들은 건가 아닌가 고개를 가웃거리고, 바삭하게 마른 토란대를 거두어들이며 몇 번이나 나물해 먹을 양인지 셈해 보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가을 성적은 '미'와 '양' 사이쯤 되는 것 같다. 가을장마와 잦은 태풍, 멧돼지와 고라니라는 변수까지 작용하여 주작목인 나락과 콩, 팥의 성적이 부진하다. 한겨울까지는 쟁여 두고 먹던 밤도 올해는 그리 많이 줍지 못했고, 감 나무엔 감이 몇 개 안 보인다. 그렇다고 일감이 줄어들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니 농가 살림이란 것이 참 오묘하다.

안 그래도 수령논인 우리 논이 최대의 과제다. 가을에 비가 잦아 물 마를 날이 없었으니 추수 때가 되어 아무리 애를 써도 모내기 때와 다름없이 밭이 푹푹 빠지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멧돼지가 우리 나락을 밟으며 신나게 놀았는지 다 여문 이삭이 곤죽이 되어 진흙에 빠져 있기까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오죽하면 우리 신랑이 나락을 저대로 뒤야 하는 거 아닌가, 추수를 그냥 포기할까 하는 고민까지 했을까.

그때 내가 나서서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당신이 안 베면 나라도 나락을 베겠다고 큰소리 탕탕 치면서 말이다. 그렇게 해서 추수가 시작되었는데 정작 나는 단 세 번 벼 베기에 참여했을 뿐이다. 눈에 다녀오면 녹초가 되어 버리니 다른 일에 기운을 쏟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집은 집대로 영망진창이고, 논에서는 또 일 잘 못한다고 잔소리나 듣고. 흑흑.

안되겠다 싶어서 슬그머니 논에 안 나가고 집에서 해야 하는 일들부터 챙기고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감까지 덤벼들고 있다. 예를 들어 도토리 같은 거. 올해는 밤뿐 아니라 도토리도 귀해 많이 줍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지난해 주워서 쟁여 놓은 도토리가 생각났다. 뒷박으로 서너 되는 너끈히 되는 양인데 당시엔 할 일이 워

낙 많으니까 한가해지면 목 해 먹지 하고, 데쳐서 잘 말려 김치통에 보관해 두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작년 걸 꺼내어 알뜰히 해 먹지 싶었는데 웬걸! 뚜껑을 여는 순간 곰팡이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오지 뭐냐. 잘 말려서 넣어 놨으니 별 탈 없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버릴까 말까' 갈등을 하다가 되살려 보기로 했다. 상태를 보니 알은 아직도 단단하여 곰팡이만 닦아 내면 될 것 같아서 말이다. 한데 문제는 겉껍질을 다 벗겨 내고 도토리 알 주름 사이사이에 낀 곰팡이까지 다 닦아 내야 한다는 것! 칫솔로 꼼꼼하게, 족히 수천 알이나 되는 도토리를! 그야말로 고행이 아닐 수 없다. 도토리가 귀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고민 없이 갖다 버리고 말았을 텐데, 아쉬우니까 할 수 없이 물에 담가 두었다가 작업에 들어갔다. ... 다울이랑 둘이서 그 작업을 했다. 다울이는 나무망치로 도토리 껍질을 깨고, 나는 껍질을 까고, 꼬박 이틀, 앓은 채로 돌이 되려나 싶게 작업을 한 결과 도토리를 부활시켰다. 한 알 한 알 줍던 수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더 큰 수고를 해서 기사회생시킨 것이다. 만세!!!

그리고 보면 나락 한 알에만 여든여덟 번의 손길이 담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에 그만큼의 손길이 담겨 있으리라. 포기하려는 마음을 지그시 누르며 생명을 생명으로 살리려는 희망의 손길이 말이다.

그러니 농사는 정말 아무나 짓는 게 아니다. 얼마나 험난할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산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 고로, 농사는 사랑이고, 사랑은 산길이다!

다나가 한 살 때 한여름의 일이다. 다나가 어려서 손이 많이 가는 상황에 다랑이까지 심한 배탈이 나서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날은 덥고 아이들 둘은 서로 내 품을 차지하려고 울고불고 난리고. 그 난리 중에 셋 다 잠이 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머리맡에 다울이 편지가 놓여 있었다.

사랑은 산길이다

언제든 길을 가다가

가시덤불이나 물웅덩이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면

사랑의 바다다

바다가 나온다

(엄마에게 다울이가)

- 정청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중에서

벼

이성부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와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

헌금 영수기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성아 임세진 김일재 김창숙 김은중 김현정 이유진a이응석 이은경 임형욱 최재욱
이수정 한나영

감사헌금

김수정 김승일 김옥곤 김일재 서담이 안민호 안성호 김희숙 오은영 유무영 황나라
무명4

녹색꿈헌금

강승일 무명1

예배 및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예배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예배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예배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예배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1청년부예배	13:30	유치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일·월 쉼)
2청년부예배	13:30	청년회실			

교회소식

1. 종교개혁기념주일 : 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오후집회 시간에 '그림으로 살펴보는 종교개혁'특강이 있습니다.
 2. 사진전 : 지난 주일에 있었던 전교인 나들이 사진전이 교회 로비에서 열립니다.
 3. 추수감사절 :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추수감사절을 준비합시다.
 4. 추수감사절 음악회 : 추수감사절 오후에 음악회'감사'가 열립니다.
 5. 결혼 : 안 훈 씨와 이은애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2일(토) 오후 1시 청파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6. 판매 : 흥천 동면교회 친환경 고구마를 판매합니다. (5kg에 21,000원)
 7. 신앙실천 : 교회의 개혁뿐 아니라 나의 개혁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 * 떡과 커피 대접 : 박기원, 이미영 권사 (아들 결혼)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호 11:1-4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홍
		2부 김기석	김기석	이은주	이재훈
10월	1부 영접위원	최재욱	헌금위원	이수정	
	2부 영접위원	박범희 장병준	설규범 권미숙	한양미 박소현	
	2부 헌금위원	강세기 조항미			
식당봉사	오늘	박홍재 정연희 안미순 김태정 김영희 오연훈 한상균 조두희			
	다음주	김성순 윤영미 배이화 김애순 임혜진 이재우 서동우 장동훈			
설거지봉사	청파7속 (오늘)	2남선교회 (다음주)	커피봉사	5여선교회	

-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우리 교회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